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엡 6:19~20)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청지기

청지기 주일, 주신 사명대로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광림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키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임을 다짐한다. 첫 시작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원전지훈련이 열렸다.

지난 1월 3~4일 집사들을 대상으로, 10~11일 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올해 신년사와 임원전지훈련을 통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엡 6:19~20)라는 2024년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길 바란다고 청지기의 삶을 강조했다.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딤후 1:7),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

라"(벧전 4:10),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 등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드려 충성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청지기의 직분은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를 뜻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뒤따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

청지기 주일을 맞아 2024년 각 위원회 조직도가 발표됐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신천장로들이 세워졌고, 남·여·실업인선교회를 비롯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들, 장애인 사역에 전심을 다하는 사랑부 교사들도 새롭게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대로 사용하시길 간구

광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영어예배에서 총무를 맡으며 이번에 신천권사 직분을 받은 김학용 권사(11교구)는 "집사일 때보다 어깨가 더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교사로서, 선교회장으로서 올 한 해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으로 청지기 주일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중을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부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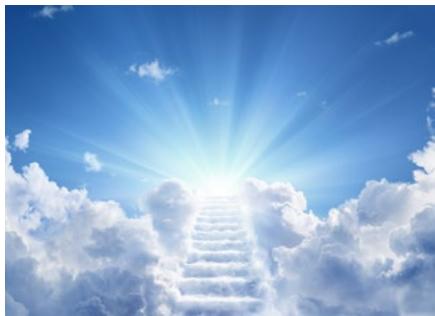
광림교회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 교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작년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동탄광림교회

를 봉헌했고,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올해도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굳게 서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바람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림의 성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결단했다.

한혜선 기자



온전함으로 돌아오라

“...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하 30:6)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대하 29:2)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기고, 힌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람, 앗수르, 에돔,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하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었던 우상들을 치우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회개 운동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적 부흥 이전에 내적 부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삶의 모습 또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6절은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아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자신 스스로 “협약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 47:9)라고 고백할 만큼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실하심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실함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을 잃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을 기다리다가 실명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꼭 돌아오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역대하 30:1-9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예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4.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5.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6.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7.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8.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이미 우리의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본문 7절에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순종이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스스로 강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순종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의 순종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늘 자신 스스로를 높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착각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은 두 가지의 죄악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이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

요와 당장의 이익을 따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이용하고 배신하며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며 신앙적인 정결함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온전한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라

교만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삶은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광림교회 교육부, 교사 임명예배

1월 28일, 비전 선포식 갖고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해

지난 1월 28일(주일) 저녁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4년 교사 임명예배>를 드렸다.

이번 교사 임명예배에서는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11명의 교육위원장, 각 부서 부장과 총무를 비롯해 총 421명(본당, 지교회)의 교사가 임명되었다.

이번 교사 임명예배에서는 5년 근속교사 29명, 10년 근속교사 21명, 15년 근속교사 4명, 20년 근속교사 6명, 25년 근속교사 3명이 근속상을 받았다. 특히 1989년부터 근속한 박정민 권사(유년 2부)와 한은영 권사(유년 2부)는 35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어 본당과 지교회(남, 북, 동탄교회)의 모범교사 27명도 모

범상을 받았다. 또한 조수진 장로를 기도 백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어린 생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림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도 좋은 교제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회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권면했다.

임명예배에 앞서 열린 2024 비전 선포식에서 임재철 목사는 2024년 교회학교 표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1,0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기도자를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 가족, 사회, 교육, 전도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10대 핵심 비전을 선포했다.

광림교회 교육부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린이영어예배부, 어와나, SSA 등이 있다.

안미영 기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십자가

2024년 대심방 선물 <십자가>



광림교회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선교구별로 1년에 한 번 대심방을 진행한다.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지구장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건강의 문제나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관심으로 돌보고 있다. 성도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심방을 기대하며 준비한다. 신앙, 가정, 자녀, 사업, 건강

등으로 겪는 고민과 아픔이 담긴 간절한 기도제목을 나눌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목회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런 예를 준비해 하나님께 드린다. 대심방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다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광림교회 전통 중 하나는 대심방을 할 때 기억에 남는 선물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2024년 대심방 선물은 십자가이며, 투명한 유리 십자가가 둥근 나무와 돌 위에 굳게 서 있는 형상이다. 나무와 돌은 진리의 터를, 십자가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 작품은 자연스럽게 올해 광림교회 표어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녹아진 성도의 모습을 상징한다.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 성화된 삶으로 변화된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는데,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수작업으로 만든 작품들은 하나하나 유리를 자르고 색을 입혀 제작했다.

심방 선물은 해마다 교회를 기념할 만한 것들로 제작되며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교회라는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 광림교회는 대심방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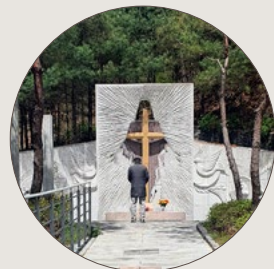
포토 뉴스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같은 이야기
역사서를 빛의 숲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온타임 가정예배문
매주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게재되고 있다.



감람동산 베다니홀 운영
설날 연휴 중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베다니홀을 운영하고 있다.



2024 청년선교국 겨울수련회
2월 16일~18일까지 '한걸음'을
주제로 비전랜드에서 진행된다.

담임목사 동정



2/2 현대고등학교 졸업예배

2/4 여선교회 월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4년도 각 부서별 신임위원장 소개



장로회장
안경섭 장로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장로회장의 직임까지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에 비해 늘 과분한 직분을 맡기셔서 더욱 기도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임 장로회장으로 섬겨주신 장세근 장로님께서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시며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 교회 사랑하심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장로회를 섬기고 담임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70년을 지내며 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담임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에 맞게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여정에 장로회가 앞장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장로 한 분 한 분이 장로회장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에 품고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므로 교회 부흥의 주춧돌이 될 것을 모든 장로님들을 대신해 굳게 다짐해 봅니다.



장학위원장
최동호 장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데 끝없이 헌신하는 광림교회에서 부족한 제가 장학위원회를 섬기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장학위원회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미래인 젊은 영혼들의 학업을 이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막중한 일을 맡은 위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각 선교회별로 진행하던 장학 사업을 1998년부터 장학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연간 100명 정도의 대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와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 큰 줄기이며, 향후 신학대학원, 고등학생에게도 그 혜택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는 RMS기업 장학금과 기념 장학금으로 김덕실님, 오옥자님, 이주형님, 이해경님, 김선옥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장학 감사헌금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정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광림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무너진 경제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영혼들과 특히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목회자들이 재정적 이유로 주의 길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장학헌금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년 전부터 '매월 1만 원 장학헌금 작정 캠페인'으로 장학기금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년교육위원장
김진섭 장로

하나님의 첫 부르심으로, 지난 5년간 4~5세 유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아부를 떠나 이번에는 소년부로 섬김의 자리를 옮기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 중, 부모의 이끌림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선택의 시기가 초등학교 5~6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년부 시절의 교회 생활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 확고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부의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년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시작된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캠프'의 뜨거움과 성령 체험이 새 학기 학교생활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선생님에게는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년부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산을 감소, 인구 절벽의 생소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의 교회 학교, 특히 소년부가 세상에 빛을 밝히며 어린 영혼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광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갈릴리성가대장
김일환 장로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사렛성가대에서 4년간 봉사하게 하시고, 2024년부터 갈릴리성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중을 세워 주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리더십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새해 믿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릴리성가대를 위해 마음 다해 헌신하고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지휘자 이태영 선생님을 비롯해 반주자, 오케스트라, 전공자들,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성가대 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갈릴리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여정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드온선교회장
최제환 장로

부족한 중에게 기드온선교회위원장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신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회, 나아가 담임목사님의 선교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밝은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와 출차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단이나 외부의 불순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도 기드온선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일치된 순종으로 봉사하는 선교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젊은 성도님들이나 다음세대 봉사자들이 우리 위원회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가까이 반갑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꽃꽃이선교회장
김정옥 권사

꽃꽃이선교회장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는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갈 때 너를 능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

이라 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가 강한 제단을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잘 나타나도록 장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최선을 다해 은혜롭게 제단을 장식할 때,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제단 꽃 장식이 성전 문지방의 축복이 되고, 또 우리 광림교회의 필요를 채워서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회원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 한마음으로 제단 꽃꽂이 봉사를 한 후 꽃방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림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쉐키나워십'



광림교회 청년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청년들을 위한 주중 예배인 '쉐키나워십'을 나사렛성전(본당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쉐키나워십'은 찬양과 말씀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모임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 청년부 공식 집회로 세워졌고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림교회 청년 신앙공동체의 주중 예배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청년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2시간

동안 찬양(30분)과 말씀(30분), 기도(60분)의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을 때도 청년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쉐키나워십을 이어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매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속회,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19년 동안 이어 온 '쉐키나워십'은 광림교회 청년들에게 주님과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의 근본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며 주일예배만으로는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준비된 찬양을 통해 은혜를 전하고 있는 '쉐키나워십' 사역팀은 편곡된 찬송가를 소개하며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한 자작곡으로 된 싱글 앨범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청년들에게 신앙고백이 담긴 노래들을 새롭게 소개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새 노래들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쉐키나워십'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와 평일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개인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쉐키나워십' 집회에서 기도의 분량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주일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청장년부



지난 팬데믹 시기,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가 지나는 의미도 조명되었지만, 동시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우리 예배(1~3부)는 성경적 원리와 교의적 전통을 잘 담아낸 모범적 전통예배의 형태를

간직해 오고 있다. 예배는 전주로 시작되어 예배위원들의 입장과 함께 우리 마음도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한다. 그리고 축제적 성격을 지닌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리고 성경봉독과 선포, 성가대 찬양, 말씀 선포와 가르침, 봉헌과 헌신의

절단이라는 예배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 영혼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 이 가장 깊은 체험의 앞뒤에 배치된 교우들과의 인사, 교회소식 나눔, 새가족환영 순서는 우리 예배가 개인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나가는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한다. 예배의 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보내시는 파송의 찬송과 축복 기도 그리고 결단과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 된다. 이런 예배 과정은 출애굽 직후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성막제사 즉 '회막 뜰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성소로 들어가 등불을 켜고 거룩한 떡을 먹으며 향을 올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피를 붓고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고, 회막 뜰로 나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모두 함께 찬

양하고 환호하는 감격하는 제의의 형식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예배가 어린양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두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고 있다. 예배는 '전주'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10여분 전 예배자리 곧 회막 뜰로 나와 기도로 희생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피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예배의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김선도 감독님 설교 중 "Worship without sacrifice is sin!"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가, 아니면 드리는가?

신범식 장로(청장년부 위원장)

광림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은 광림교회의 오랜 역사와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적 공간이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2023년 11월에 사회봉사관 5층에 재개관하여 매주 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성도들에게 개방

되고 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상단 메뉴 중 영적공간을 클릭하면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록을 상세히 볼 수 있다. **광림의 역사·현재·미래** 단순한 역사관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영적공간으로 교회의 뿌리인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광림교회의 탄생과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 광림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신앙적 중심이 되었던 5대 전통,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다. **웨슬리의 발자취**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은 광림교회의 역사

뿐만 아니라, 초기 감리교회의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별히 웨슬리 기념 공간은 영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웨슬리 채플 감리교박물관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광림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유물을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 존 웨슬리의 석고상과 웨슬리 채플의 파이프 오르간 일부, 초기 감리교회 찬송집, 인쇄물 등 웨슬리 채플과 성도들에게 기증받은 소중한 유물과 그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된다.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1-16 시리즈는 광림 뉴스레터에 2020년 4월~2021년 9월까지 연재되었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감리교를 탄생시키고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존 웨슬리의 생애와 회심, 감리교의 시작과 부흥 운동 또한 감리교의 성화와 웨슬리의 연보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조선 선교의 아버지 가우처 목사, 조선 선교의 개척자 로버트 새뮤얼 매클레이, 조선에 온 첫 감리회 선교사 헨리G.아펜젤러 선교사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 행적을 따라가 본다. 한국 선교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앞으로 나누어야 할 선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다.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는 현재 광림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다. **소현수 기자**

목회현장

하나님 사랑은 고통보다 크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죽은 자는 아파하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에 얻으신 부활이 이를 증명한다.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단이다.

서울대병원교회 예배당은 개방되어 있다. 여름이면 에어컨으로 시원하고, 겨울이면 난방으로 따스하다. 간혹 교직원과 보호자들이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싶어 오는 이들도 있지만,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을 보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며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라고 위로해 주실 것만 같다.

기도를 드린 이들은 예배당을 나갈 때 기도 노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나, 응답의 글들을 남기고 간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다.

“오늘 검사를 하고 집에 갑니다. 며칠 후 결과가 이상 없게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를 고쳐주소서. 세상 의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재발 후 성장을 멈추어 주소서. 부족한 성도가 간구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소서.”

환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나의 고통보다 클 것을 기대한다. 기도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는 욥의 고백처럼 말이다.

노정현 목사(서울대병원)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 첫 겨울성경학교 진행



2024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탄광림교회에서는 첫 번째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사건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고, 다짐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첫째 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창조, 죄와 심판, 언약’을 주제로 코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민속촌을 방문하면서 평소에 낮가리고 서먹했던 아이들이 함께 친해지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간 총 38명의 아이들이 겨울성경학교를 참여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과 함께 선물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과 다짐한 약속들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새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조금씩 실천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교회학교 교사들이 기쁨으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주셨고, 겨울성경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시고, 봉사와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는 겨울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며 하나 되는 교회학교를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다음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준 전도사(동탄광림교회)

신앙 토크쇼로 진행된 금요은혜의 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 나사렛 성전에서는 광림교회 금요은혜의 밤이 진행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2시간 가량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뜨거운 성령집회입니다.

지난 1월 26일 7선교구 주관으로 진행된 금요은혜의 밤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기 코미디언 김기리 성도를 초대하여 신앙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기리 성도는 2010년 KBS 공채 출신으로 간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다음해 코미디언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뮤지컬과 영화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지근한 보통의 크리스찬 코미디언으로 살아갔지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보통 크리스찬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7선교구 담당목사인 저와 김기리 성도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7선교구 성도님들로부터 이야기의 주제를 미리 조사하였고 1시간 가량 그 주제 안에서 진솔한 토크를 주고 받았습니다.

김기리 성도는 담배를 입에 물고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몇 해 전 어머니의 반대로 술 광고를 거절하였는데 막상 돌이켜 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가 생각하며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과 함께 하는 성경통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며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

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며 토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마친 후 19교구 우혜영 집사님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 당일 찬양을 하였던 유다지와 윤예지 성도는 “성경 통독이 주는 신앙적 유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마친 후 저는 금요은혜의 밤이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주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금요은혜의 밤의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용식 목사(7선교구)

튀르키예 지진, 그 후 1년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했다. 당시 가지안테프라는 도시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실상 하타이주 안타키아(수리아 안디옥)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잘 보도되지 않았을 뿐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며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안타키아는 로마 시대의 유적은 물론, 제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가

분할통치할 때 건축된 100년 이상 된 건물도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유서가 깊은 도시이다. 특별히 이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며, 이슬람 국가가 되었음에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는 곳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세운 튀르키예에서 공인된 유일의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다. 작년 대지진으로 안디옥 개신교회도 큰 피해를 봤으며, 3층 건물 중 2, 3층이 완전히 무너져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원하거나 재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1차, 2차 재건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문화재 복원 전문 업체와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기 때

문에 자칫 교회 건물만 우뚝 서게 되면 주변 이웃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기에 지역 복원 계획에 맞춰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진 후 12주간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무너진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동네에 임시 예배 처소를 임대하여 예배드리고 있다. 재난이 님을 당시 광림교회 구호팀의 활동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으며 지진이 나기 전보다 예배드리는 인원도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세운 NGO단체를 통해 정부에서 이재민을 도울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한국 교회마을(Korean Church Town)을 준비 중이다. 2층 조립식 건물 15동, 총 30가정이 생

활할 수 있으며, 이 부지에는 교회와 주민 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교회마을은 우리교회와 더불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힘을 합쳐 조성해갈 예정이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이레 학교와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광림 목회자팀이 방문했을 때, 김정석 담임목사님이 월드컵전에 지원한 기금으로 시리아 난민에게 담요와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안디옥 개신교회는 광림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고자 한다.

✚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선교사

<루체포레>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기쁨으로 봉사하는 고은경 권사

빛의 숲을 의미하는 루체포레(Luce foret)는 사회봉사관 1층에 있는 교회 내 카페로 2014년부터 지역 사회의 쉼터와 더불어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로 쓰임 받고 있으며, 광림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고은경 권사(20교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루체포레에서 오랜 기간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남편이 신전장로가 되던 해 2014년 5월부터 루체포레에서 총무로 봉사를 시작했고, 2019년부터 책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다가 작년에 김도옥 장로님을 책임자로 재개장하면서 다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바리스타 2급과 1급 자격증

을 취득했고, 현재는 베이커리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면서 카페에 더욱 전문적인 봉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포스(계산대)에서 주문을 받다 보면 사회봉사관 주차권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몇 마디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교인으로 바로 등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포스를 볼 때 항상 전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루체포레는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며 교인과 비교인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교인들은 이곳에서 만남과 교제, 휴식을 취하지만 BBCH홀을 찾아오는 외부 관객, 주변 직장인들, 비교인은 루체포레를

통해 교회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체포레는 그분들께 교회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늘 신중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루체포레 봉사자로서의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루체포레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카페입니다. 올 한해 루체포레가 지역 사회 안에서 더 많은 선교의 장으로 쓰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에 시도했던 캐럴 음악회 이후 비어있는 무대가 다양한 공연의 장으로도 채워졌으면 합니다. 이 장소가 회복과 치유의 장, 선교의 장,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루체포레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선교의 장입니다.

다. 많은 성도님들이 카페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루체포레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의 : 루체포레 (010-5441-5520)

✚ 박희운 기자



예배 활성화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남선교회

1월 28일, 2024년 남선교회 신년예배 및 임명식



2024년 남선교회총연합회의 직분 받은 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신년예배 및 임명식>이 1월 28일(주일) 나사렛성전에서 열렸다. 엔테오스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본부 임원, 각

선교구연합회장 및 개체선교회장이 참석하여 올해 광림교회 표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남선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 전파라는 선교 사명을 앞장서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요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처럼 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

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제단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예배에 이어서 10년간 3선교구 연합회장으로 봉사한 박유근 권사를 비롯해 연합회장의 직임을 내려놓은 이임 회장들에 대하여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2023년을 결산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한 선교회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우수 선교구연합회로는 2, 8선교구, 우수교구는 4, 14, 19, 24교구, 우수개체선교회는 3디모데를 포함 총 12개 선교회가 선정되었다. 올 한 해 남선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할 운영위원, 본부임원, 선교구연합회장, 교구회장 등

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으며, 각 개체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든 스테판, 디모데, 바울 및 웨슬레선교회의 센터장에 대한 임명장도 함께 수여되었다.

2024년도 남선교회 사업 일정표에 대해 설명을 한 총연합회장 박기연 장로는 “남선교회의 본분은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으며 오늘 임명장을 받은 각 개체선교회장, 교구회장, 선교구연합회장님들의 믿음과 헌신, 섬김으로 개체선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복음, 선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남선교회, 주신 사명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남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 이득섭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4



앓은뱅이를 고친 베드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 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여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 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게 여기며 놀라니라”(행 3:5~10)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유대의 기도 관습으로, 이른 아침과 오후 3시와 해질 무렵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앓은뱅이 한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며, 성전 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말했다. “가련한 불구자를 지나치지 마시고 적선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랍게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앓은뱅이였던 것을 알아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은 몹시 놀라며 수군거렸고, 모인 사람의 수가 늘어나자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하였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에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앓은뱅이가 고쳐진 기적과 함께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계속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외치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분개하였다. 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앓은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는 모습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곤혹스러웠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 그 수가 대략 오천 명에 달하였다.

이튿날,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 재판을 하였다. 앓은뱅이였던 사람도 증인으로 나와 있었다. 곧 재판관들이 두 사도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고친 일로 받는 재판이라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너희 석공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잇돌(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끼는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식(學識, 정식으로 배워서 얻은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에 놀랐다. 게다가 고침받은 앓은뱅이를 보고서는

◀ 앓은뱅이를 치유하는 베드로_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다. 그가 행한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카렐 뒤자르댕의 작품

▲ 설교하는 베드로_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한 것처럼, 베드로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니콜라 푸생의 작품

뛰라고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을 잡아 둘 방법이 없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후 다시 불려서 경고했다. “이후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러자 두 사도가 되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도와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합심(合心)하여,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이처럼 사도들의 전도와 헌신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히 부흥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물론 초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지혜롭게 해결하였으며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었다.

광림 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